

## 이민진 소설 『파친코』에 나타난 공간적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

장 희 동\*\*

### 요약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주로 일본에 사는 한인 이민 4대 가족이 역사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며 그 속에서 다중적 의미 텍스트 공간을 보여준다. 소설 속 공간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배경일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수단으로서 캐릭터 구축 및 줄거리 전개, 주제·의미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텍스트 공간은 복잡한 은유와 의미 체계로서, 사회, 역사, 문화, 윤리 등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나타낸다. 공간적 내러티브는 한국계 미국인 유명 작가인 이민진 작가의 소설에서 깊은 사상적 의미를 가진다. 공간적 체현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문화적 상상뿐만 아니라 소설 속 공간적 형식을 담아낸다. 본연구는 공간적 내러티브 측면에서 『파친코』의 문학 내러티브에서 공간이 갖는 주제와 의미, 가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파친코』 속 공간 표현 및 유형을 바탕으로, 이민진 작가의 감정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결합하여 추상적인 의미의 공간적 내러티브 전략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의미에서 소설 텍스트와 외부 세계에 나타난 사회 공간을 고찰하여 『파친코』 속 미묘하고 복잡한 공간적 내러티브에 반영된 다양한 사회 주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예술 혁신, 사회적 책임, 역사적 진실과 소설적 의미 등 중대한 명제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철학을 탐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이민진, 파친코, 공간적 내러티브, 개인 초상, 사회 파노라마

\* 이 논문은 중국 국가 유학자금 관리위원회 (China Scholarship Council)와 한국 정부 초정장학금 (Global Korea Scholarship)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CSC NO: 202208230004).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들어가며
2.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
3. 공간 형식: '개인의 초상'에서 '사회적 파노라마'에 이르기까지
4. 나가며

## 1. 들어가며

이민진(Min-Kim Lee, 1968-)은 현재 미국 문단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작가로, 이민진의 작품들은 대중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주류 문학 평론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민진은 다양한 창작 기법으로 각종 사상과 사회상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섬세한 서술로 독자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고의로 독자들의 오독(誤讀)을 이끌어낸다. 또한, 정교한 서사 기교, 충만한 감정과 깊은 사상으로 당대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민진은 2008년 첫 작품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Free Food for Millionaires)」을 시작으로 섬세한 문필과 감정 표현을 바탕으로 기승전결 속에서 독자들의 윤리적 사고를 불러일으킨다. 그중에서 2017년작 『파친코』는 일본에 있는 조선인에 관해 직접 영어로 쓴 첫 작품으로, 예리한 필치로 일본 사회 속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아웃사이더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파친코』는 2018년도에는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선정되어 여러 미디어에서 호평을 받으며, 다수의 수상과 영예를 얻었다. 최근에는 애플TV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미국 드라마로 제작하였고 이는 유명한 41명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뉴욕대학교, 보스턴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등 많은 대학교 문학 과목의 필수 서적이 되었다.

역사 전공의 이민진 작가는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하고 문헌을 보는 것

을 좋아한다고 자술하면서 『파친코』를 쓰기 위해 대량의 문헌 자료를 찾아 읽었다고 한다. 그리고 『파친코』에 대해 독자들은 역사적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자신이 알아보고 학습한 후 작품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캐릭터를 구축할 때 영감은 음악 같은 것이 아니라 취재와 자료에서 비롯되었다. 『파친코』 타임 라인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로, 1989년은 작가 이민진이 일본에 있는 조선인 집단을 처음 알게 된 해이다. 『파친코』가 출간된 해는 2017년으로, 1989년 처음 영감을 받았을 때부터 조사 연구, 창작에 이르기까지 약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며 『파친코』가 출판되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민진 소설 『파친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파친코』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주로 이산 소설 분석, 윤리학, 여성주의, 역사주의, 생태주의 등 비평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미 이론도 『파친코』 연구 분야에 활용되어 관련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였다. 학계에서 『파친코』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작품에 담겨진 깊은 철학과 예술적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sup>1)</sup> 페미니즘에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sup>2)</sup> 전후 일본사회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차별적 구조 속 재일조선인들의 불안감과 동요<sup>3)</sup>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간적 내러티브 관점에서 『파친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간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공간적 유형, 공간적 내러티브 전략과 공간

1)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제22호, 2021, 103면.

2)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파친코』」, 『아시아여성연구』 제58-3집, 2019, 209면.

3) 오태영, 「경제 위기의 존재들 -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제82호, 2021, 377면.

적 특성 측면에서 『파친코』에 나타난 공간을 해석하고자 한다.

‘공간적 내러티브’는 『파친코』에서 깊은 사상적 의미를 갖는다. 이민진 작가는 인간의 공간적 경험에 대한 문화적 상상과 소설의 공간적 형식을 담아냈다. 『파친코』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할 뿐만 아니라 문학,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술 영역, 그리고 공간 비평 이론을 논한다. 먼저, 『파친코』의 공간적 차원은 지리적 의미에서 공간 구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이자, 각종 권력과 문화가 만나는 사회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민진 작가는 공간적 내러티브 구조를 활용하여 줄거리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주제와 의미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경험, 심미적 체험, 사회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반성을 소설에 융합하였다. 다음으로, 『파친코』의 텍스트 공간은 작가, 독자, 텍스트, 그리고 사회와 역사로 동적인 소설 세계를 구축하였다. 『파친코』에서 보여준 공간의 다양성, 예술성과 사상성은 공간적 내러티브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파친코』에 관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강한 윤리 의식과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이민진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조화로운 사회를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는 공간 전환에 대한 문학 비평 분야의 관심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본질에 대한 작가의 철학적 사고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를 다루는 동시에 작품의 사상적 주제, 차원 구조와 이민진 작가의 문화적 의미에 중심으로, 이민진 소설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파친코』의 연구 영역을 보다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

1990년대부터 공간적 내러티브 연구는 공간과 지리학, 문화, 문학 연구 등 다양한 학술 분야와 연계한 융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문학 작품 속 공간은 공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주목을 받으면서 문학 작품 속 공간 비평은 오늘날 현대 서양 문예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공간 비평 학자들은 문학 작품 속 각종 공간에 포함된 다차원적인 사회, 문화 속성에 주목한다. 또한, 심리학, 포스트 식민주의, 여성주의와 서사학 이론을 수용하면서 문학비평, 문화지리학과 공간 연구를 결합시켰다. 그리고 공간 이론과 계급, 인종, 성별, 정체성, 정치, 세계화 등 현대 사회 문화 이론을 융합하여 탐구한다.<sup>4)</sup> 필립 웨그너(Phillip E. Wegner)는 『공간비평: 지리학, 공간, 장소, 텍스트성 비판(Spatial Criticism: Critical Geography, Space, Place and Textuality)』에서 당대 문학 비평 분야의 ‘공간 전환’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간 비평은 지식, 권력, 신분,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 문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 서양의 문학 이론과 문학 연구는 공간 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학 연구의 ‘공간’ 측면에서 텍스트 속 공간 서사는 지리적 의미에서 공간 구조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공간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며 소설의 서사 구조에 심리 상태와 문화 구조, 그리고 다양한 사회상을 담아낸다. 영국 문화지리학 연구자인 마이크 크랑(Mike Crang)에 따르면, 문학 작품은 지리적 공간에 대한 묘사와 재현뿐만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저서 『문화지리학』에서 ‘문학작품은 단순히 지리 경관을 정겹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제시하여 지리적 의미, 개인 경력과 지식을 포함한 광범한 영역을 알려준다. 사회적

4) Julian Wolfreys, ed., *Introducing Criticism at the 21st Centu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196-197면. 이하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함.

산물로서 문학은 사실상 일종의 사회 의지이다라고 하였다.<sup>5)</sup> 이와 같이, 문학 작품에서 공간 서술은 경관, 장소와 인물의 풍토를 인식하는 방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신분, 역사, 문화 속 공간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나아가 문화와 사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의 지리적 공간은 공간의 거시적 현상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역사적, 문화적 사고를 부각시킨다. 미첼(W.J.T. Mitchell)은 『Landscape and Power』에서 지리적 공간을 ‘경제와 문화의 집결지’라고 보았다. 또한, 모든 지리적 경관 구조는 경제적 의미나 심미적 의미 측면에서 모두 주체의 관념을 나타낸다. 지리적 경관은 가시적인 객체나 읽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주체의 신분을 구축하는 과정을 가리킨다.<sup>6)</sup> 이민진 작가는 지리 공간과 주체 의식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부산, 오사카, 요코하마 등 세 가지 각기 다른 도시 공간을 선택한 후, 각 도시에 문화적 감정을 부여하여 『파친코』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파친코』의 서사에는 개인 심리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간도 담겨 있다. 소설 인물의 심리 공간은 인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문화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배경으로 각 인물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한다. 따라서 인물의 심리 공간은 인물의 심리와 그 변화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 회상 공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현대인의 주체 의식 구축과 정신적 소외가 이루어지는 심리의 변화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인물과 타인, 사회, 그리고 역사 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이해를 나타낸다. 문학의 비평 측면에서 공간 이론의 발전과 함께 문학 텍스트는 광범위한 사회와 역사를 배경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문학의 해석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텍스트에 포함된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5) Mike Grang, *Cultural Geography*. New York: Routledge, 1998, 57면.

6) W.J.T.Mitchell, *Landscape and Pow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1면.

미친다. 문학 작품 속 공간은 특정한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담아내 현실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며 깊은 사상적 의미를 나타낸다. 문학 속 공간 전환에 대한 평론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파친코』 속 공간성은 인생에 대한 사고와 일상생활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 1) 지리 공간: 주변인의 이동과 추방

문학과 지리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불가분의 개념으로, 문학 작품은 지리학에 다량의 감성 자료를 제공하며, 지리학은 문학 창작에 공간적 위치를 제공한다. 필립 E. 웨그너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제 간 융합 연구의 구도는 ‘공간’, ‘장소’, 그리고 ‘문화지리학’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 공간 중심의 비판이 나타난다고 보았다.<sup>7)</sup> 이에 문화지리학자 마이크 크랑은 지리학 측면에서 문학 작품은 작가가 단순히 한 장소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속 사회의 공간 구조를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sup>8)</sup> 크랑의 견해에 따르면, 문학 작품에서 지리 공간은 현실 공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현실 공간을 구성하며 사회적 의식을 나타낸다. 문학 작품의 ‘주관성’은 장소,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뜻한다. 미국 문학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리처드 레한(Richard Lehan)은 저서 『문학 속의 도시: 지식과 문화의 역사(The City in Literature: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에서 도시와 문학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도시의 부상과 변천, 그리고 낭만주의,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작품 속 도시의 표현에 대해 논했다. 레한에 따르면 ‘문학 속 도시’는 문학과 도시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학과 도시는 서로 상호보완의 관계라고 보았다.<sup>9)</sup> 그리고

7) Julian Wolfreys, ed. 앞의 책, 180면.

8) Mike Grang, 앞의 책, 39-40면.

9)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 New York: University

독자들은 문학 텍스트를 접하면서 사실상 도시의 각 발전 단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생활 공간과 경험이 뒤섞인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 다중 공간을 떠돌거나 이동하기 때문에 생존 공간과 대립을 하게 된다. 신체의 이동이나 흐름은 문학 공간을 형성하는 기초를 구성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신체의 이동과 방향의 변화에 따라 텍스트 공간 속 소설 인물을 파악하고 소설 공간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한다. 소설에서는 공간 이동, 공간 질서, 공간 기억 등 각종 공간 관계에 대한 서사가 나타난다. 각종 공간의 은유, 예를 들어 지역, 도시, 공원, 지하철, 위치와 같은 도시 사회학의 중요한 개념을 비롯하여, 이동, 이사, 노숙, 추방, 표류와 같은 사회적 신분 연구의 핵심 개념은 모두 텍스트 공간을 해석하는 각종 요소를 구성한다. 도시를 묘사하는 이민진 작가의 방식은 당대 사람들의 심리 공간과 주체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이며, 동시에 문명과 본능의 충돌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매개체이다. 소설 속 공간은 서사의 틀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주인공은 여러 차례의 이동과 추방을 거쳤다. 소설은 공간의 위치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부산 영도, 오사카, 요코하마에서 이동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그리고 1990년대 말 일본 경제 시대의 요코하마와 도쿄, 나아가 뉴욕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파친코』는 여러 세대에 얽힌 가족과 고향, 융합과 귀속, 돈과 신앙 등 각종 문제의 관계와 모순을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주인공의 공간적 위치를 삽화 방식으로 보여주며 타지인의 삶을 보여주었다.

‘고향은 이름이자, 단어이며 강한 힘을 지닌다.<sup>10)</sup> 이는 공간으로서 고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한마디로 축약하고 있는데, 주인공 선자에

of California Press, 1998, 44면.

10) 이민진, 『파친코1』, 인플루엔셜, 2022, 1면. 이하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함.

게 영도는 기쁨의 땅이자, 상처의 땅이다. 영도는 선자의 성장을 동반하는 공간으로서, 아버지 훈이는 영도의 공간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선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다. 훈이는 딸에게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어주었고 사탕을 사줄 돈을 모으려고 담배를 끊었다. 선자는 잘 웃고 발랄했으며 평범하게 생긴 여자이었으나, 아버지의 눈에 선자는 누구보다 예뻐 보였다.<sup>11)</sup> 이와 같이, 선자에게 영도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쁨을 간직한 공간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파친코』에서는 ‘해안선이 평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두 사람이 섬 반대쪽에 자리 잡은 숲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들이옷을 입은 양 노랑고 빨강게 물든 커다란 소나무와 단풍나무, 전나무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라는 묘사가 있다.<sup>12)</sup> 1932년 초여름 부산 영도의 해변은 소녀 선자의 아름다운 고향이자, 첫사랑을 만난 곳으로, 일생의 운명이 시작되는 곳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생한 장면 묘사로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은 이민진 작가의 특징적인 창작 기법으로 꼽을 수 있다. 짙은 서정성과 생동감이 있는 아름다운 언어는 독자들이 빠르게 텍스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이후 등장하는 공간들은 영도를 묘사한 장면을 바탕으로 전개가 되며, 영도의 특징과 영도가 전달하는 다양한 감각은 이후의 서사를 전개하는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선자에게 영도는 고한수와의 애정이 깃든 공간으로 환락이 가득한 땅임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선자 일가가 운영하는 민박집은 현실 공간으로서, 세입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복희 자매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그리고 선자 일가에게는 생계이자 백이사에게는 수양을 제공하는 장소다. 이는 이민진이 소설에서 재현한 『파친코』의 공간적 상징과 유사하다.

『파친코』는 영도가 상처로 가득 찬 땅이라고 강조한다. 영도는 선자의

11) 이민진, 앞의 책, 24면.

12) 이민진, 앞의 책, 73면.

삶과 마음속에서 가장 멀리 있고 꿈이 묻힌 곳이자, 수천수만 명의 한인 이민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몽과 흉터이며,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며 피지배를 받았던 대중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를 나타낸다.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소작농이었는데 총독부가 근래 벌인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 주인이 땅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나마 짓던 농사마저 짓지 못하게 된 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이 흠아비는 하필 딸만 줄줄이 넷을 뒀고 아들이 없었다. 숲에서 뜬어 온 나물이나 내다팔 수 없는 생선, 혹은 비슷한 처지인 가난한 이웃들에게 가끔 얻은 양식 말고는 끼니를 때울 것이 없었다.<sup>13)</sup> 선자는 백이사와 함께 일본으로 떠나기로 했을 때 어머니는 선자를 위해 흰쌀밥을 한 번 지어주려고 하였다. 조 씨의 딸들은 몇 해 전에 혼인했다. 작년에 둘째 사위가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사에게 쫓기자 만주로 도망했다. 그래서 지금 조씨는 사위가 그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이 나라에서 쫓아 내려한 부유한 일본인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곡식을 팔아서 그 훌륭한 애국자 사위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sup>14)</sup> 이는 선자의 부모가 준 따뜻함과 대조적이며, 선자가 영도를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사적 공간은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 또는 대상의 세계를 묘사하면서 실제와 같은 감각을 조성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모종의 의미를 구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물리적 장소의 실상을 고스란히 구현하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본격적인 서사 공간으로 인정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간의 묘사 속에서 서사적 의미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공간의 형상이 나타나며 그 실감 형상이나 지시적 투영 여부를 가늠하는 것보다는 서사적 공간 현상의 국면을 분석하는 데 관건이 있다.<sup>15)</sup> ‘오사카’라는 공간의 상징성과 그 역사·문화적 의미는 도시 기호의 공간 서사 기능을 강화하

13) 이민진, 앞의 책, 20면.

14) 이민진, 앞의 책, 143면.

15) 장일구, 『서사공간과 서설의 역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95면.

였다. 이야기 공간은 현실 공간을 거울식으로 재현하거나 객관적인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부여한 은유적인 이미지를 가리킨다. 텍스트의 공간은 정지되거나 고정된 상태의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생성하는 이야기 공간이다. 『파친코』는 ‘순종을 통해 주인공의 첫인상을 형상화한다. 선자는 백이사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백이사의 형 백요셉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며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한다. 백요셉은 백이사와 선자가 일본에서 지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리대금을 빌렸고 채권자가 찾아와 빚을 요구하자 선자는 전당포에 가서 회중시계를 팔아 빚을 갚았다. 백요셉은 선자와 경희를 명칭한 여자로 생각해 망신을 당했고, 이후 거리로 나가 다른 남자를 대할 수 없게 되자 겁쟁이가 됐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경희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자 경희와 백요셉의 다툼이 일어난다. 백요셉은 선자를 모욕하고 자신의 동생이 도둑이나 창녀를 얻었다고 의심하며 선자를 바보라고 말했고, 경희도 같이 비난하였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런 일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남존여비의 환경에서 선자는 저항하지 못했고 고통 속에서 발버둥칠 수밖에 없었다. 선자는 인내가 여자의 책임과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반항할 의사가 없었다. 반항을 통해 두 번째 주인공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선자는 백이사가 체포돼 투옥된 뒤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였다. 선자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야 하였다. 백요셉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에서 김치를 팔기 시작한 선자는 이후 사장 김창호의 초대로 주방에 가서 일을 도왔고, 이때 선자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파친코』는 ‘오사카’라는 공간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남성으로부터 얽매었던 과거의 신분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이야기 공간을 조성하였다.

솔로몬에게 ‘요코하마’는 낯설고 익숙한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s)’로

서, 『파친코』에서 부동한 공간적 상징과 장소의 기억으로 나타난다. 『파친코』 속 헤테로토피아는 국가나 지역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속 장소에서 벗어나 계급이 분화된 공간적 질서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페테로토피아는 『파친코』에서 저소득층의 집결지, 그리고 빈민가라는 특수한 기억의 공간을 구성한다. 이야기 공간인 ‘오사카’와 ‘헤테로토피아’는 소설에 존재하고 서로 중첩이 이루어진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화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지만 이야기가 다른 시공간으로 전환될 때에는 화자가 다시 등장해 서사를 전개시킨다. 선자의 서사적 시각은 어떠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사적 능력을 가진다. 솔로몬은 국제유치원에 다니며 신식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에서 전 여자친구 피비, 그리고 가족과는 조선어, 일본어,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우랑 선생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가 우랑 선생에게 토지를 팔고 같은 가격으로 소라가 있는 회사에 토지를 팔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인수 과정에서 노부인이 땅을 판 지 며칠 만에 숨지자 회사원들은 조선인의 더러운 냄새를 지울 시간이 필요하고 회사의 명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핑계로 소라를 해고하였다. 솔로몬은 도시의 중심부와 변두리 지역을 전전하면서 임시 거주와 추방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민족적 신분, 소득 격차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사는 한인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일본의 사회 문화에 어떻게 융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파친코』가 독자들을 감동시킨 원인은 소설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독자들의 깊은 사색과 질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있다. 『파친코』는 공간의 분화, 계층의 고착화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와 위기로 가득차 있으며 걱정스러운 미래상을 그려냈다. 소설의 굴절된 빛은 주위의 거대한 어두운 공간을 비추어 독자에게 두려움과 초조함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사색과 깨달음을 불러일으켰다.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세계 구도의 거대한 변화로 인해 일본은 점차 강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도쿄 등 일본의 대도시에서 나타났다. 일본의 제한된 자원과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생존의 위기와 경쟁 의식을 느꼈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사회의 곳곳에서 폐쇄적인 분위기와 내부 갈등, 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였다.

소설 인물의 운명 및 공간 구성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섬세한 묘사는 특정한 환경 속 작가 자신과 현실 공간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우울한 정서와 엄격한 의문으로 구성한 공간을 구축했다. 그리고 주인공 가족은 모두 재외한인으로, 일본 사회의 변두리 공간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고향이나 타지에서나 모두 타인으로 간주되며, '사는 곳'을 잃고 온갖 모욕과 고난을 겪었다. 『파친코』는 재일 한인들의 생존 공간과 상류층과의 격차를 묘사하면서 취약 계층과 주류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그려냈다. 이민진 작가는 '사는 곳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글쓰기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파친코』를 통해 재일 한인 작가들의 정체성과 전통적인 문학 사상을 탈피하여 재일 한인들의 현모습을 제시하며 독자들의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 2) 기억 재구축: 아웃사이더의 추억과 치유

20세기 미국 언어학자 질 포코니에(Gilles Fauconnier)는 최초로 심리 공간 이론을 제시하였다. 질 포코니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 사람들은 심리 공간을 구축한다고 보았다. 심리 공간이란, 인간의 인지를 묘사하는 도구로서 일상적인 말과 사고 방식에서 언어의 형식 이면에서 나오는 각종 의미, 화용과 문화 등 다양한 정보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통합되는 과정을 묘사할 수 있다.<sup>16)</sup> 소설 속 심리 공간의 묘사 과정에서는 인물

16) 질 포코니에(Gilles Fauconnier)는 갈리푸퀴아대학교 산티아고 분교 인지 과학과 교수로, 개념 통합, 심리 공간의 구축과 인지 영현(Cognithve Mappings) 등 인간의 사고와 언어에서 나오는

의 심리적 경험을 핵심 서사로 삼아 인물의 주체적 사고와 정체성 구축을 바탕으로 인물과 외부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심리 공간을 조성한다. 소설 속 기억의 재구축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목적에 따라 수정이 이루어진 결과로서, 독특한 장소에 대한 기억과 공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소설 속 기억은 시간을 재구성하면서 주인공을 소환하여 과거를 회상하고 시간을 복원하여 기억을 재구축한다. 이어서 과거에 대한 향수와 추억을 강화하면서 장소의 기억을 통해 특정 공간이 지닌 문화적 의미와 사회·역사적 의미를 보여준다. 나아가 문학적 공간과 기억 구축 간의 내적 연관성을 나타낸다.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은 ‘기억이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sup>17)</sup> 이는 현재와 과거가 복잡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억은 관점에 따라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일 수 있다. 동시에 서로 다른 매개체인 텍스트, 이미지, 장소와 서로 다른 언어인 문학, 역사, 예술, 심리 등과 관련된다. 소설 속 기억 공간은 텍스트를 활용한 기억의 재구축 과정에 더욱 중점을 둔다. 기억의 재구축은 인정(Recognition)과 회상(Recall)이라는 서로 다른 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인정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지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현재 겪고 있는 사건을 과거에 경험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자연스럽게 서로 비슷한 공통점을 구축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어디서 본 것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sup>18)</sup> 다음으로, 회상은 사람들의 기억 메커니즘과 관련된 적극적인

---

무의식적인 심리 활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994년에 출판한 질 포코니에의 <정신 공간 : 자연 언어의 의미 구성 양상(Mental Spaces: Aspects of Meaning Construcion in Natural Language)>에서 최초로 심리 공간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지칭의 은닉성과 투명성, 지칭의 역할과 가치 간의 복잡한 관계 등 언어 철학의 난제에 대해 논했다. 질 포코니에, 나익주,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역. 정신 공간: 자연 언어의 의미 구성 양상, 한국문화사, 2015, 1면 참조.

17) Virginia Woolf, *Oiando, A Biogrephy*. Hamondsworth: Perguin, 1975, 56면.

18) R.Sheldrake, *The Presence of The Past: Morphic Resonance and the Habits of Nature*. London: icog eooks, 2011, 308면.

뇌 활동 과정에 속한다. 이에 사건과 관련된 의미를 회상시키면서 과거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에 기억과 의식의 연속성과 신분 인정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영국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는 ‘의식’은 기억의 기능성이며 시간을 통합하는 능력으로, 자아를 통제하고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존 로크에 따르면 의식에는 시간과 기억을 포함한다. 그리고 자아 의식 구축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통합한 결과이다.

『파친코』에서 심리 공간은 인물의 심리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인물의 감정, 가치 판단 등 개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공간이 된다. 『파친코』의 창작 스타일을 살펴보면, 이민진 작가는 인물의 자아 의식 발굴을 중시한다. 소설이 다른 예술 형식보다 뛰어난 이유는 내부적인 서사 시각으로 인물의 의식과 흐름, 그리고 인물이 사랑과 위기, 또는 도덕적 곤경을 겪은 후 주관적인 사상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러티브 기법으로 『파친코』에 등장하는 인물의 심리 공간을 살펴보면, 이민진 작가는 주로 병치된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하면서 짧은 이야기와 줄거리를 서로 병치하여 각기 다른 인물의 심리 공간을 구축한다. 이와 같은 독특한 내러티브 방식은 이민진 작가가 사회 생활과 인물 사상에 숨겨진 모순과 충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모순과 충돌로 『파친코』는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적 의미와 예술적 감화력을 가지게 되었고 『파친코』 속 심리 공간에도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파친코』는 특정한 역사적 시기가 인물에게 미치는 심리적 낙인을 보여준다. 또한, 인물의 주체 의식 구축과 현대 사회 속 정신적 소외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인물과 타인, 사회, 그리고 역사 관계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인식과 이해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친코』 속 등장 인물의 심리 공간은 주로 기억 공간으로 나타난다. 기억 공간이란, 특정한 시공간에서 과거에 일어나거나 겪은 일을 회상 및 기억하는 정신적 활동, 또는 과거 사물에 대한 인

상을 말한다. 소설 속 인물의 운명과 공간 구축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세밀한 묘사는 모두 특정한 언어 환경에서 현실 공간에 대한 기억으로 나타난다. 『파친코』 속 기억 공간은 주체가 외부 세계와 내적 자아를 인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물의 심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 문화 전승, 정체성, 트라우마, 텍스트의 은유 등 다양한 측면이 연계된다. 인지 주체와 인지 객체의 본질적인 관계를 부각함으로써 이민진 작가는 인물의 심리 공간을 자아 의식으로 통하는 다리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심리 공간을 『파친코』의 주제 구축과 예술 구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민진 작가는 『파친코』에서 기억을 서술자가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기억은 서술자에게 과거의 회상과 반성을 의미하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아를 관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를 추억하는 자아와 추억되는 자아로 분열시킨다. 내러티브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자아는 서술자가 지난 일을 회상하는 시각과 추억되는 서술자가 사건을 겪고 있을 때의 시각 등 두 가지 서사적 시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에 대해 잠재적인 평가와 판단을 내린다. 『파친코』 속 기억 공간은 자아의 가변적인 체험으로, 시각의 환원과 재현으로 구축된다. 그 근원에는 휴면 상태에서 소환되는 추억이다. 새로운 감정은 최초의 인식과 추억으로 생겨난다. 인식은 오랜 시간 하나의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관찰하면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반응 속에서 평온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점차 인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자아 정신 속에 존재하며, 최초의 인식과 유사하다.<sup>19)</sup> 이와 같은 기억의 패턴은 ‘사후성’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추억은 재구성 과정에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생산하는 활동이다.<sup>20)</sup> 이러한 ‘사후성’의 특징을 갖는 기억은

19) Gill, Stephen,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79면.

20) Aleida Assmann, "Memory, Individual and Collective", in: Robert E. Goodin and Charles Tilly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2006, 210-224면.

인물의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와 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하며,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인물의 심리 변화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기억의 인지와 반성 과정에서 자아 해탈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단명료하게 전개된다. 서술자는 소소한 가족에 대한 기억과 이성적 추론으로 서사의 전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 가족에 대한 기억은 가족의 결집과 정체성을 제고한다. 어머니 양진은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양진은 선자를 돌봐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다. 두 사람은 자기 집은 없었지만 다행히 하숙이라는 밥벌이가 있었다. 하숙인들이 매달 첫날에 방세와 식비로 23원을 냈지만, 이 돈으로 장에서 곡식과 난방용 석탄을 사기가 갈수록 벅찼다. 하숙하는 사내들이 버는 돈은 늘지 않았으니 하숙비를 올리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하숙인들에게 주는 밥 양을 줄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사골을 푹 고아서 걸죽하고 뽕안 국을 끓였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무쳐서 맛있는 찬을 만들었다. 돈이 거의 떨어지는 월말이 되면 광에 조금 남은 보리와 기장, 보잘것 없는 것들로 어떻게든 밥을 지었다. 곡식 자루가 거의 바닥나면 콩가루를 물에 개어 맛 좋은 부침개를 부쳤다. 하숙인들이 장에서 팔지 못하는 생선을 가져다주기도 했는데, 남은 게나 고등어 한 들통이 생기면 먹을거리가 더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절여두었다.<sup>21)</sup> 선자가 이사와 함께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어머니는 선자를 위해 흰쌀밥을 차려 주었다. 그러나 당시 백미는 일본인에게만 팔렸지만 어머니는 선자가 집에 대한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초 사장한테 쌀을 달라고 하였다. 초 사장은 양진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양진은 선자가 일본에 간다며 울며불며 하소연하여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인에게 파는 것과 같은 가격으로 양진에게 백미를 조금 팔았다. 『파친코』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골탕과 흰쌀밥은 조선 시대

21) 이민진, 앞의 책, 27면.

평범한 가정의 식습관, 그리고 동시에 일제 시대의 열악한 생활상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추억을 회상하는 모습들은 낯선 서사를 조성한다. 낯선 서사를 통해 서술자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자신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추억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정한 시각과 강렬한 감정이 결합된 경험이다. 추억은 분위기와 감정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명백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묘사도 할 수 없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다양한 인상과 추억, 사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으로서, 문학이나 역사적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유대감이 클수록 감정의 끈은 더욱 단단해진다.<sup>22)</sup> 『파친코』에서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진은 네 번째 아이이자 유일한 딸인 선자를 낳았다. 선자가 세 살이 되고서야 선자의 부모는 옆에 누워 있는 작은 형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거듭 들여다보지 않고도 잘 수 있었다. 훈이는 딸에게 옥수수 껍질로 인형을 만들어주었고 사탕을 사줄 돈을 모으려고 담배를 끊었다. 하숙인들이 훈이와 같이 밥을 먹고 싶어했지만, 훈이는 늘 식구셋이서만 밥을 먹었다. 훈이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했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면서, 딸이 바라는데로 무엇이든지 다 해주었다. 선자는 잘 웃고 발랄했으며 평범하게 생긴 여자아이였으며, 아버지의 눈에 선자는 누구보다 예뻐 보였다, 훈이는 선자의 완벽함이 경이로웠다. 세상에서 훈이만큼 딸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도 드물었다. 훈이는 자식을 웃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 같았다.<sup>23)</sup> 그는 네 번째 아이로 살아남은 이 소녀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고, 그는 최선을 다해 이 ‘소녀’를 부유하게 키웠다. 소녀는 이후 인생에서 성격이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마음이 강하게 자랐다. 이후

22) 아·푸투안, 윤영호 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98면.

23) 이민진, 앞의 책, 24-25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선자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선자는 이삭이 체포된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선자는 아들을 어머니에게 데려가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선자는 살기 위해 거리에서 김치를 팔 때 주위 소상공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비참하고 잔혹한 환경에서 살았다. 선자는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던 장면과 고향 최고의 시장 이쭈마가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떠올렸다. 선자에게 아버지는 큰 정신적 지지와 동력을 가져다 주었고, 성별 억압을 극복하고 자신을 되찾도록 지탱해 주는 동기였다. 일이 끝난 후 감옥에 가서 남편 이삭에게 밥을 갖다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렸다. 선자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친절할 말씀을 잊은 적이 없다.

친근감과 편의함,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확신, 소리와 맛에 대한 기억, 공동의 활동과 세월이 쌓아온 아늑하고 기쁜 추억으로도 깊은 잠재의식 같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날 수 있다.<sup>24)</sup> 선자의 첫사랑 고향수는 『파친코』 속 또 다른 중요한 인물로, 선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선자는 벽을 마주 보고 불에 손을 올려 한수의 손길을 따라해 보았다. 한수는 선자를 볼 때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끊임없이 선자를 어루만졌다. 몸을 쉬고 나서 한수의 손가락이 선자의 작고 둥근 턱에서 킷바퀴를 지나 넓은 이마로 올라가며 얼굴 곡선을 쓸었다.<sup>25)</sup> 아버지는 그의 일생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녀가 고향수를 잘못 사랑해 고민에 빠졌을 때, 그녀는 먼저 아버지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딸이 정부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많은 고향수 곁에서 결연히 떠나며 스스로 노력하는 일생을 시작한다.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에 선자는 여전히 고향수를 떠올린다. 백요셉은 백이사와 선자에게 일본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리대금을 빌린다. 채권자가 찾아와 빚을 갚아 달라자 선자

24) 아-푸투안, 윤영호 김미선 역. 앞의 책, 99-100면.

25) 이민진, 앞의 책, 122면.

는 전당포에 가서 고한수가 준 회중시계를 팔아 빚을 갚는다. 선자는 손에 든 회중시계를 보며 고한수와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린다. 특히 큰아들 노아가 태어난 후 그는 고한수와 많이 닮아 고한수에 대한 선자의 기억을 더 불러낼수 밖에 없다.

가정은 독특한 기억 공간으로서 사회와 역사에 관한 선자의 추억을 담아낸다.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적 사건은 기억에서 비롯하여 일종의 학술과 개념, 상징으로 전환되며, 의미가 부여되면서 사회의 사상과 체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한다. 어떤 상징적인 힘을 얻었다는 추억은 자신 삶의 경험을 회고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되고 어떤 의미의 틀 속에 놓이게 된다. 강렬한 감정과 달리 상징의 의미는 지각과 추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추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적 수요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생활에 관한 경험은 해석이 이루어진 추억을 바탕으로 삼으며 이는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 추억을 통해 자신의 주체 의식을 구축한 선자는 사건의 진상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적 경험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

### 3. 공간 형식: ‘개인의 초상’에서 ‘사회적 파노라마’에 이르기까지

문학 평론가 데이비드 미켈슨(David Mitchellson)은 『서사 속 공간 구조의 유형』에서 소설의 주체는 관련 구조에서 생겨나며 개인의 초상과 사회적 파노라마라는 두 가지 공간으로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또한, 20세기 소설의 서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서사의 정보는 주인공이 가진 개인의 초상에서 연결된다. 시간이라는 퍼즐 장난감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단락일지라도 결국에는 각자의 자리를 찾는

다. 이에 따라 파노라마가 완성될 때 편성된 시간을 재현하면서 줄거리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줄거리의 해결은 정지된 완결이라기보다는 정지된 해석에 더 가깝다.<sup>26)</sup> 따라서 개인의 사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공간적이고 형식적인 작품은 실제로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한다. 하지만 소설 속 공간 형식의 표현에는 개인의 초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노라마가 있으며, 이는 소설의 줄거리가 확장될 수 있으며, 행동은 단일 인물에서 시작하거나 인물의 중심에서 시작하여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바로 사회의 이미지로서, 데이비드 미켈센은 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사회라는 공간을 설명했다. 소설의 구성은 마치 여러 개의 굴쪽으로 이루어진 굴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굴 속 중간 줄기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중간 줄기는 사회, 굴쪽은 개체를 가리키며 다수의 굴쪽은 정적인 전체를 구성한다.

한편, 이민진 작가는 ‘개인의 초상’이라는 서사적 전략을 통해 캐릭터의 심리적 시공간을 구축하였다. 또한, 인물의 복잡한 특징, 특히 특정한 결정이나 심리 상태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부각시키기 위해 선형적인 시간 순서를 의식적으로 약화시켰다. 이에 『파친코』에서 묘사되는 인물들은 심리적으로 왜곡되고 감정적으로 어두운 사회적 주변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파친코』 속 인물들은 성격의 변화가 없고, 서사의 전개는 인물을 수평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정적인 화면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민진 작가는 ‘사회적 파노라마’라는 서사 방식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 정치, 역사, 문화 등 시대적 배경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묘사는 종종 줄거리를 전개시키고 인물 이미지를 다양하게 구성한다. 이민진 작가는 텍스트에 특정한 인상을 담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재외 한인들 통해서 일본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었다. 이는 독자들이 소설 속 인물과 같이 적

26) Dostoyevsky, Fyodor, Frank, Joseph, Goldstein, David I., *MacAndrew, Andrew R. Selected letters of Fyodor Dostoyevsk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153면.

절한 관련 영역에서 다양한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통일된 공간적 이해를 이끌어낸다.

### 1) 개인 초상: 말할 수 없는 비밀

거대한 인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성애는 인류의 번식과 문명의 계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장 경제적이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으로 인해 사회는 합법적인 연애 결혼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동성애는 인간의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점차 소외되고 문제화시키고 있다. 수많은 문학 작품들은 이성애를 묘사하면서 동성애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숨기려 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발언권을 상실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동성애자는 성소수자로서 주류 사회의 경계에 놓여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한다. 아무도 이들의 진정한 감정적인 욕망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 문학 작품에서 동성애자들은 종종 창백하고 공허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세계는 항상 기괴하고 황홀하게 묘사된다. 하지만 이민진 작가는 『과친코』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해 최초로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주변인의 세계를 묘사하며, 짓밟히고 괴로워하는 동성애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성애와 다를 바 없는 아름답고 순수한 감정과 선량하고 진실한 인간성을 보여주었다.

『과친코』 속 변태적 성, 금기의 성, 말할 수 없는 성, 만족스럽지 못한 성, 실현 불가능한 성 등 성관계와 신체적 폭력이 나타난다. 인간성에 관한 어두운 면은 소설 속 비극적 색채가 짙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전통 소설 속에 이미지와 달리 대부분 모호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여주며 초현실주의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민진 작가는 허황된 줄거리와 주관적인 언어를 통해 주변인들의 뒤틀린 내면 세계와 신경적인 인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또한, 『과친코』에서 인간성의 어두운 면과 금기시되는 캐릭터 즉, 동성애를 만들어냈다. 『과친코』

속 소토야마 하루키는 억압과 고독이 가득한 현대 도시에서 더 이상 갈망을 꿈꾸지 않고, 이미 잃었거나 곧 잃어버릴 욕망을 한탄할 수 밖에 없었다. 성별은 존재가 아니라 행동이며 성별은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정체성이다. 주체는 성별에 대한 반복적인 인식과 이해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별에 대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다. 비록 하루키는 생리적으로 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행동도 전통 사회에서 남자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면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 정체성은 앞의 두 가지와 대응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성의 관념에서 남자나 여자는 이성으로부터 성적 충동을 얻는다. 하루키의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 일시적인 성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소토야마 하루키는 남성에 대해 전통적인 사회가 추구하는 모습, 즉 생리적인 성별과 사회적 성별의 불일치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민진 작가는 은밀한 방식을 활용하여 하루키의 동성애를 특별하게 표현했다. 인간성을 억압하는 성별에 대한 이원론적인 인식과 이성애를 강조하는 규범 속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 동성애는 일률적으로 이류(異流)로 분류되며,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위치한다. 타인과 다른 성 정체성과 취향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원죄이며, 이는 곧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된다. 소토야마 하루키는 친구들 앞에서 이해심 많고 온화한 남자이며, 친구들은 하루키를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으로 상상한다. 그리고 경찰로서의 하루키도 동성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루키는 입은 있으나 말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동성애 사실을 가슴 깊이 눌러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못한다. 하루키한테는 아버지가 없었다. 하루키에게 머리가 찌그러진 여름 참외처럼 생긴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하루키의 어머니는 일본인인데도 더 나은 거처를 찾기가 힘들었다. 집주인들이 그 가족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sup>27)</sup> 아버

27) 이민진, 앞의 책, 384면.

지의 부재는 하루키의 여성성에 깊은 영향을 끼쳐 성인이 된 후 예민하고 섬세한 마음을 드러낸다. 한편, 성별에 대한 주류 사회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하루키는 지혜, 강한 정의감, 야망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전통적이고 사회적인 성 관념 속에서 하루키의 내적 욕망과 요구는 거듭 억압당하고 무시당한다. 이에 하루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본능적인 욕망을 피한다. 하루키의 동성에 경향은 어린 시절에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소토야마 하루키는 열한 살이었고 곧 열두 살이 될 참이었다. 하루키는 모자수와 달리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려고 몹시 신경을 쓰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무리의 아이들조차 하루키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처음에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결코 잊지 않았다.<sup>28)</sup> 그때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는 짝퉁 동성 감정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그것을 표출하였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무도 그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 자신도 이 남다른 감정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비슷한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고통의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욕망을 억누르게 된다.

하루키는 모자수와 다시 만났을 때 모자수의 칭찬에 부끄러워져서 주먹으로 모자수의 어깨를 슬쩍 쳤다. 모자수를 멀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모자수를 향한 감정이 너무 강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sup>29)</sup> 하루키는 이 감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선택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하루키의 동성에 경향을 모를 뿐만 아니라, 늘 함께 지내는 배우자도 몰랐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병을 느끼기도 했고 낮

28) 이민진, 앞의 책, 384-386면.

29) 이민진, 『파친코2』, 인플루엔셜, 78-79면. 이하 인용 시 페이지만 표기함.

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경찰학교 동기인 고지에게 마음이 갔는데, 그는 남자답고 재미있었다.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정도의 분별은 있었기에 모자수에게 했던 것처럼 고지와 거리를 두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루키는 단풍나무 옆에 있는 모자수를 언뜻 보았을 때 길을 건너기가 두려웠다. 모자수를 슬쩍 본 것만으로도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어렸을 때 하루키는 고통스러운 학교생활에서 자신을 구해준 모자수를 추앙했다.<sup>30)</sup> 하루키와 아내의 결합은 감정이나 욕망이 아니고 단지 한 남자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어야 한다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최고 결합이었다. 뿌리 깊은 이원적 대립의 성관념에 사로잡혀 하루키는 진정한 성 정체성을 선택한 용기가 없었다.

소토야마 하루키는 어머니의 제복 가게 작업반장인 아야메와 결혼했다. 어머니가 바라서였지만, 지나고 보니 현명한 결정이었다. 두 해 동안 능숙하게 가게를 운영했고 병든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디스크를 잘 보살폈다.<sup>31)</sup> 사실 하루키는 자기 동성애 취향에 대해 잘 알고 남몰래 해결방법을 찾아 보려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출되고 사라지지 않는 욕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강해졌다. 본능을 맡겨야 할지 아니면 현실에 순종해야 할지 라는 고민 끝에서 하루키는 후자를 선택하고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감추었다. 하지만 본능적인 감정이 계속 하루키를 괴롭히고 있었다. 쌓인 감정을 털어놓지 못할 때 낯선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곤 하였다. 『파친코』에서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눈에 뜨이는 참나무 옆에서 두 남자가 껴안고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더 젊은 남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는데 키 큰 남자의 회색 정장이 아야메가 남편에게 지어준 정장과 비슷했다. 남자는 눈을 질끈 감고 흥분으로 혈떡거리는 하얀 면 러닝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를 꼭 잡고 있었다. 하루키와 하얀 러닝셔츠 차림의 젊은 남자는 다 끝나자 말없이 옷을 입었고, 고개를 숙이거

30) 이민진, 앞의 책, 78-79면.

31) 이민진, 앞의 책, 186면.

나 손을 흔들어 인사하지도 않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sup>32)</sup> 하루키는 자신의 남다른 성적 취향에 대해 부정하고 동성애라는 신분을 철저히 감추며 모자수를 사랑했을 뿐이다. 하루키의 모자수에 대한 사랑은 하루키만 알면서 숨기고 있는 동성애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무수히 모자수를 외치며 모자수와 어떤 접촉을 상상해도 그것은 결국 말할 수 없는 사랑이며 모자수도 알아채지 못한 사랑이었다.

『과친코』는 하루키의 본능적인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과 실패를 통해 실현불가능한 동성애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불가능성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인 성적 규범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를 추구하는 강력한 단체에 직면한 개인의 두려움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보이지 않는 힘은 개인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다. 이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루키는 성인이 된 후 엄격한 사회 규범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동성애를 결국 타인에게 알리지 못하고 결국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목매달아 죽고 싶었고 여전히 그 생각을 했다. 하루키는 모든 범죄 중에서 살해 후 자살하는 경우를 가장 잘 이해했다. 하지만 절대 다이스케를 죽일 수 없었다.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짓을 아야메에게 할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었다.<sup>33)</sup> 하루키는 동성애자로서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었다. 이민진 작가는 하루키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말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의식을 표출하였다. 이는 이민진 작가가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일본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불공평과 차별 대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출구로 삼아 동성애의 현모습을 낱알이 보여주려고 했지만 활로를 찾지 못해 애를 먹었다. 강력한 사회 규범과 이성애 속에서 동성애자가 성별에 대한 편견

32) 이민진, 앞의 책, 195-196면.

33) 이민진, 앞의 책, 207면.

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주류 사회가 통제하는 성별관은 넘을 수 없는 격차로 나타났다. 동료를 찾고자 하는 소망이 헛수고가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외를 당했다.

## 2) 사회적 파노라마: 역사 홍수 속의 ‘아웃사이더’

‘파노라마 소설(Panoramic Novel)’에서 ‘파노라마’라는 단어는 회화 속의 화폭과 화폭 앞의 실경이 결합된 파노라마를 가리킨다. 포스터는 ‘파노라마 소설’에 대해 ‘파노라마는 소설의 심미 분야에 속한다. 소설의 다른 방면과 관련이 있지만 예를 들면 인물, 장면, 대사, 주로 줄거리, 꼬리가 연결된 흐름에서 비롯된다. 주요 인물이 겪은 일련의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일련의 다른 임무를 끌어내고 마지막으로 한 폭의 사회 파노라마를 그려 낸다’라고 정의하였다.<sup>34)</sup> 파노라마 소설은 진실한 역사를 바탕으로 삼아 실제로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결합한 원칙을 따른다. 작품에서 보여준 역사적 분위기와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묘사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 나타난다. 파노라마 소설은 종종 방대한 대상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전방위적인 인식과 이해를 전달한다. 허구적인 텍스트에서 역사성과 사실성, 문헌적 특징을 하나로 융합하여 깊은 역사적 특징을 담아낸다. 이민진 작가는 현대 사회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아 텍스트 곳곳에 사회적 배경을 담아냈다. 인물들의 관계와 인물의 의식을 통해 사회적 배경을 드러내며 독자들은 끊임없이 각 부분을 조합해야 한다. 다양한 사실적 표현과 상징적 표현은 공간적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현대 사회 이미지를 구축한다.

소설을 통해 현실 속 역사적 사건을 다시금 돌아보고 사회와 역사 속

34) E.M.foster, *Aspects of the Novel*, Hoddev&Stoughton, 1974, 104면.

에서 인물의 운명에 주목한다. 이민진 작가는 구체적인 사건을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융합해 사실적인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사실적인 배경에 허구의 인물과 역사의 인물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sup>35)</sup> 『과친코』의 타임라인은 1910년부터 1989년까지로, 1910년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을 배경으로 한 소설 『과친코』는 일제시기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이후 국가주의 의제에 대해 뚜렷한 관심을 가진다. 이에 『과친코』은 일제강점기 시대 속 조선의 사회적 현실, 바로 조선땅에 사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에 어떻게 ‘침입’했는지를 예언한다.

1910년 훈이가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에 일제가 강제로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삼았다.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억척같이 살아내는 촌사람들 뿐인 어부와 아내는 나라를 빼앗긴 무능한 양반들과 부패한 위정자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세가 다시 오르자 부부는 하숙인들을 더 받으려고 안방을 내주고 부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잤다.<sup>36)</sup>

이는 개인의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한 시대, 한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낸 장면으로, 『과친코』의 줄거리는 주인공의 개인 전쟁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공적 공간에서 개인의 공간으로까지 침입이 뒤따른다. 1910년에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정식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식민지 시대에서 선자네는 부산 영도에 살았다. 대공황 때 소녀는 밀 국수 한 그릇을 위해 몸을 팔고,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먹을 밥을 주기 위해 조용히 떠나 죽음을 기다렸다. 동시에 일본 식민 통치하에 조선의 양반과 평민은 모두 거대한 압박을 받는다. 양반 귀족들은 지세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밭과 집을 혈값에 팔아야 한다. 평민 남성들은 결혼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한다. 그들은 처자를 위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뽀뽀하고 허름한 민박집에 묵기로 한다. 이곳에서 그들은 결혼

35) 이민진, 앞의 책, 15면.

36) 이민진, 앞의 책, 16면.

하지 않아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무료로 그들을 도와 빨래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좋은 땅, 쌀, 수산물은 모두 일본으로 운송하거나 조선에 있는 일본인에게 팔아야 한다. 본토의 조선인들은 돈이 있어도 백미를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인 공간에 대한 사회의 침입은 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과 개인 영역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고, 둘 사이에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서로 굴절되며, 정치 세계가 어떻게 개인 세계에 침입하는지 탐색한다.

한국 전쟁 때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 애국심은 그저 이념이야,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념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잊게 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이념에 지나치게 심취한 사람을 이용하지. 너 조선을 바로잡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들이나 나 같은 사람이 백 명이 있어도 조선을 바로잡을 수 없어. 일본이 빠져나가고, 이제 소련과 중국과 미국이 거지같이 작은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어.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해.<sup>37)</sup>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영웅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정치와 전쟁에 맞서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쓸 만하다. 고국에서 전해져오는 소식들은 끔찍했다. 콜레라가 창궐했고 굶주림에 허덕였으며 아주 어린 남자아이들까지 억지로 군인으로 징집해 간다고 했다. 그에 비하면 오사카에서 근근이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들의 생활과 노아의 학비를 굶어모으려는 애처로운 노력이 편안하게 여겨질 지경이었다.<sup>38)</sup> 처음에 선자가 집을 그리워한다. 고향의 수박, 상추, 호박이 더 맛있고 달고 더 부드럽다. 그러나 고향은 돌아가지 못하고 밖에서도 잘 지내지 못한다. 전쟁에 빠진 일본은 사람마다 살기가 쉽지 않고, 조선인들은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특히 어렵다. 노아와 모자수는 학교에서도 각종 차별을 당한다. 노아는 모든 차별을 무시하고 오로지 책만 보며 학업

37) 이민진, 앞의 책, 362면.

38) 이민진, 앞의 책, 377면.

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틀리지 않고 조선인이 열등하다는 인상에서 벗어나겠다고 은근히 마음 먹는다. 일본인처럼, 또는 사람답게 살려고 모든 낙후, 모든 어둠에서 벗어난다. 학교 비용이 생부 고향수가 준 것지만, 고향수의 수입이 노아가 경멸하는 반동 조직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노아는 무너졌다. 고생 끝에 합격한 와세다 대학교를 그만두고 동생 모사가 있는 파친코 오락실에 일하기로 하였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일본인의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며 일본 여자와 결혼한다. 그는 청교도적 생활에 가깝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일본인의 배일을 덮고 있어도 초라한 조선인들의 소굴에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파친코(パチンコ)는 일본에 인기 있었던 도박 기계를 가리킨다. 재일 조선계 이민을 묘사한 이 『파친코』가 제목을 이와 같이 선택한 이유는 큰 시대 작은 인물의 운명 롤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인생은 앞날을 모르는 도박판으로, 어떤 승자도 없다. 그럼 왜 파친코라고 하는가? 파친코는 서양 탄자기를 개조한 게임 설비로서 오락성과 도박성을 합친 기계이다. 아웃 카운트, 조종 강도, 로또 형식, 확률 변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플레이어들도 착각을 들게 한다. 이들은 파친코의 규칙을 관찰하고 각종 기술을 연구 및 연습하면서 소량의 금액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일본 파친코 산업은 대정 시기부터 일본(소설 제1권 배경 연대)에 도입하였고, 전후를 기점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1930년~40년간의 게임과 경쟁(소설 제2권 후기부터 제3권 전기까지를 거쳐 80년대(쇼화 시대 후기)에 파친코 업종은 공장 사장으로부터 산업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매장 매니저부터 위생 청소 직원에 이르기까지, 기계 제조부터 절차 연구 개발에 이르기까지 재일 한인계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 공간에 대한 국제주의의 침입은 가족 구성의 국제화 추세에서도 나타난다. 1990년대 말, 일본 거품 경제 시대에 당시 일본 외상이었던 무토 가분은 국회 답변에서 일본 파친코 산업이 조선 정부의 가장 큰

해외 자금원이 됐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일본 노인의 연금과 주부의 야채값은 모두 파친코를 통해 일본, 심지어 미국 대포동 미사일로 변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이 일시에 떠돌았다.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나 사건의 중요성은 공간성보다 강렬함에 비례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sup>39)</sup> 모자수는 본성이 좋은데도 여전히 파친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는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광범위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일본 사회가 모자수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사실 모자수도 완전한 의미의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파친코 장사에 종사하려면 마음씨가 착한 사람은 해당 업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모사는 자신의 노력과 근면으로 스스로 지점을 차리고 많은 돈을 벌었다. 그의 경험에서 조선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배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당시 일본 사회의 정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고 진정으로 일본에 융합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용기로 일본 밑바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가며 가정 경제 상황과 사회 계층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헤겔은 ‘인류가 역사에서 배운 유일한 교훈은 인류가 역사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헤겔의 저서는 1989년 출판이 딱 끊겼다. 1989년은 일본의 연호가 쇼와 시대에서 헤이세이로 교체된 해이며,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의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승승장구하던 ‘쇼와 경기’ 시대가 막을 내렸고, 그 대신 ‘잃어버린 시대-헤이세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일본 경제는 길고 고통스러운 쇠퇴기를 시작했으며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파친코』의 이야기가 1989년에 마무리하여 가정이 자신과 파친코 산업을 묶는 운명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것을 예고한다. 전 국민이 파친코에 빠져드는 데 따른 일련의 사회 문제를 다루며,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책 법규와 행정 수단을 통해 파친코 산업에 대한 압박을 전면적으로 시작한다. 그후, 10여년 동안 파친코 업계의 전체

39) 이-푸투안, 윤영호 김미선 역. 앞의 책, 2020, 337면.

규모는 3분의 1로 위축되었고, 다수의 재일 한인들의 삶은 파산과 실업을 겪으면서 큰 위기에 직면한다. 일본에서 파친코는 재일 한인계를 상징한다. 세상 사람들은 파친코를 경영하는 사람이 기회, 운과 담력으로 생계를 꾸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불법으로 경영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않는다며 무차별적으로 그들을 깡패로 고발한다. ‘재일 한인’과 ‘파친코’는 나쁜 사람, 나쁜 일로 인식되어 항상 비난과 불공정한 일을 당한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은 전지적 관점으로 서사를 전개하며 재일 한인 이민자들의 군상을 객관적으로 형상화한다. 또한, 허구의 인물과 실제 역사를 교묘하게 연결하여 4세대 운명,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예로부터 섬나라 일본이 대륙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곳이자, 러시아가 동아시아를 점령하고자 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특히, 민족 갈등, 신앙 충돌, 문화 차이, 계층 분화, 정치적 분쟁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주변 각 강대국은 사리사욕으로 격렬한 사회적 동란, 심지어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지리적 위치와 국력 부족이라는 국정으로 인해 조선은 강대국의 틈새 속에서 고통을 금치 못하였다.

#### 4. 나가며

공간적 내러티브는 텍스트 공간으로, 줄거리의 전개와 배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설 내러티브가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를 담아낸다. 인물 설정, 줄거리 전개와 주제 의미 구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문학 공간을 복잡한 은유와 의미의 체계로 만든다. 이에 공간적 내러티브는 사회, 역사, 문화, 윤리 등 다양한 차원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간적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소설 『파친코』 속 공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민진 작가의 감정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결합

하여 추상적인 의미에서 이민진 작가의 공간적 내러티브 전략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학적 의미에서 소설 텍스트와 외부 세계의 중첩에 형성된 사회 공간을 분석하여 이민진 작가의 미묘하고 복잡한 공간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 주제를 제시하였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 속 공간성은 현실 세계의 의미와 이민진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간성을 통해 새로운 인지 방식과 미학 형식을 창조했다. 사회 계층 갈등에 주목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은유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글을 쓰면서 각종 사회 현상의 배후에 숨어있는 심층적 구조와 구축 원리에 입각하여 현실사회에 대한 반항과 타협, 생존 공간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을 끊임없이 탐구했다. 또한, 이민진 작가는 불평등한 사회 윤리 도덕 제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탄하고 제일 한인 집단에 존재하는 인종 갈등과 계급 갈등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인종 차별과 계급 관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파친코』를 만들었다.

『파친코』의 서사를 살펴보면, 텍스트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이야기의 서사와 줄거리 전개를 묘사하고, 동시에 각종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과 역정을 묘사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일본 사회 속 제일 한인들이 경험하는 비애가 나타났다. 공간적 내러티브를 살펴보면, 소설 공간에 대한 이민진 작가의 세밀한 묘사는 인물의 출신 배경과 인생 경험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발생하는 장면, 줄거리의 무대와 인물 위치 이동 방향을 보여준다. 심리적 공간 측면에서 소설은 인물의 추억을 바탕으로 고향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나타내고 기억을 감정과 향수에 기댈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삼았다. 『파친코』는 주로 공간 이동, 공간 질서, 공간 기억 등 내러티브 전략과 상징적인 방식을 활용하여 주인공과 주변 인물의 장소를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공간 기호에 내포된 직접적인 의미와 함축적인 의미를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파친코』는 가정에 대한 기억을 섬세하게 묘사하

며 공간의 의미와 은유적 의미를 전달했다. 나아가 소설 속의 공간적 내러티브와 기억 구성은 내적 연관성이 나타난다. 『파친코』에서 개인의 초상과 사회적 파노라마의 전환이라는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먼저, 개인의 초상에 나타난 서사 전개는 인물의 성장을 종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정적인 화면으로 보여준다. 사회적 파노라마는 광범위한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인물의 인생을 보여주며 당시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인물의 개인 공간에 침입했는지를, 그리고 정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었다. 이로 부터 이민진 작가는 시대의 전환과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가 날로 심해지는 현실 속에서 일본 사회의 경계선에 위치한 재일 한인들의 침통한 기억과 미래 생존 공간에 대한 우려를 해석하였다.

종합하자면, 공간적 내러티브는 『파친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텍스트 공간에 내포된 사회와 문화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구조로서, 심미적 인식을 겸비한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이민진 작가가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재현하는 서술 메커니즘이며 이는 『파친코』에서 일관된 핵심 이념이다. 『파친코』의 공간적 내러티브는 공간 철학과 문학 창작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었다. 구체적으로 소설에 나타난 공간 요소는 시간, 정치, 역사, 문학 창작과 사회 문화 등 거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설의 주제, 줄거리, 시각, 독자 및 작가의 심리 등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속 공간을 지리학, 문학, 역사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술 영역과 공간 비평 이론으로 구성하였다. 이민진 작가는 이러한 구성에 공간이라는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독특한 공간적 내러티브 모델을 창조하였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는 문학 창작에 공간 이론을 접목한 창조적인 사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소설의 창작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이민진, 『파친코1』, 인플루엔셜, 2022.

이민진, 『파친코2』, 인플루엔셜, 2022.

2. 논문 및 단행본

오테영, 「경계 위의 존재들 -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제82호, 2021, 377-405면.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제22호, 2021, 103-133면.

이승연, 「생존을 위한 도박: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자이니치의 삶 『파친코』」, 『아시아 여성연구』 58-3집, 2019, 209-216면.

이-푸투안 지음, 윤영호 김미선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장일구, 『서사공간과 서설의 역할』,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질 포코니에 지음, 나익주,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역, 『정신 공간: 자연 언어의 의미 구성 양상』, 한국문화사, 2015.

R.Sheldrake, The Presence of The Past: Morphic Resonance and the Habits of Nature. London; icog ebooks, 2011, 308면.

Aleida Assmann, "Memory, Individual and Collective", in: Robert E. Goodin and Charles Tilly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ntextual Political Analysis (Oxford: OUP, 2006), pp. 210-224면.

Dostoyevsky, Fyodor, Frank, Joseph, Goldstein, David I. MacAndrew, Andrew R. Selected letters of Fyodor Dostoyevsk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153면.

E.M.foster, Aspects of the Novel, Hoddev&Stoughton, 1974.

Gill, Stephen, William Wordsworth: a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Julian Wolfreys, ed. introducing Criticism at the 21st Centur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1.

Mike Crang, Cultural Geophy. New York: Routledge, 1998.

Richard Lehan, The City in Literature: An Intellectual and Cultural History.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Virginia Woolf, Oiendo. A Biogrephy. Hamondsworth: Perguin, 1975.

W.J.T.Mitchell, Landscape and Power.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Abstract>

## A Spatial Narrative Study in Min-Kim Lee's Novel *Pachinko*

Zhang, Xidong

The novel *Pachinko* by Korean American writer Min-Kim Lee's is written about four generations of Korean expatriates struggling to move forward in the flow of history and reveals a textual space with Multiple Meanings. The space in the novel is not only a container and background for the story development, but participates in and influences the characterization, plo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thematic meaning as a narrative technique and means, thus making the textual space a complex metaphorical and semantic system that is endowed with multi-level meanings such as social, historical, cultural, ethical etc. Spatial narrative has profound thoughts in Min-Kim Lee's novels, carrying not only the writer's cultural imagination of spatial experience, but also her creative practice of spatial forms of novels. This paper explores the thematic implications and value judgments of space in the literary narrative of *Pachinko*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 narrative. Starting from the specific types of space in *Pachinko*, and combined with the writer's Feeling Structure and ideology, it analyses the spatial narrative strategy in the abstract sense from the upper strata and the social space formed by the superposition of the novel text and the external world in the sociological sense from the upper strata. The aim is to reveal the rich social themes under the subtle and complex spatial narrative of

Pachinko, and to illustrate the writer's philosophical thoughts on such major propositions as artistic innovation, cultural dynamics, social responsibility, historical truth and novel significance.

Key words: Min-Kim Lee, *Pachinko*, Spatial narrative, Personal portrait, Social panorama

투 고 일: 2023년 1월 18일

심 사 일: 2023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3월 22일